

[ 기획 ]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디지로그(Digilog)란 무엇인가요?

■우리곁에 있는 디지로그

컬러짚·싸이월드·MSN 최신판 중·장년층 낭만·감성 접목 호평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양상불인 '디지로그'는 인터넷 공간과 마케팅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융·통합한다'는 구체적인 '디지로그 철학'을 토대로 한 제품개발이나, 시도는 초기 단계지만 디지로그는 이미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기술로 특허를 받은 컬러짚(Color Zip)은 본격적인 디지로그 상용화 시도다. 컬러짚이란 바코드의 차세대 개념이다. 바코드가 흑과 백으로 구성돼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됐다 면, 컬러짚은 4가지 색상(적·록·녹·청)을 이용해 각종 디지털 정보를 기록, 저장하는 데이터 표현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신문 광고에 컬러 코드를 실으면 컴퓨터나 휴대폰의 카메라로 이를 인식, 온라인 정보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다. 코드 인식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면 PC, 휴대폰, PDA 등 어떤 기기든 컬러 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거나 보충 설명 내용을 손으로 직접 써서 화면에 보여주고(왼쪽), 칠판처럼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Tablet).

일본의 경우 관광버스에까지 컬러짚을 채택했고 상업용 포스터에도 등장했다. 컬러짚은 온·오프 라인 매체간 결합이 이뤄진 것으로서 디지로그의 핵심 개념을 보여주는 기술이다. MSN메신저 최신판에는 '링크'대화 기능이 추가됐다. 키보드 대신 자판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키보드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에 노트에 필기하던 시절의 아날로그적인 낭만을 느끼게 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자판을 낯설어 하는 중장년층에게 호평을 얻었다. 싸이월드도 아날로그 감성을 접목한 것이다. 싸이월드 미니홈피가 누리꾼들에게 각광받은 것은 한국인과 한국 문화의 특성을 '아날로그적 관계'를 잘 이용했기 때문이다. 싸이월드는 '또 다른 소외의 공간'에 머물 수도 있는 사이버상에 타인과의 정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인의 아날로그적 감성을 접목한 것이다. 필름 카메라의 수동기능을 갖춘 디지털 카메라도 디지로그 적용의 사례다. '찰칵'하는 셔터의 소리와 모터드라이브의 필름 감는 소리가 소비자들로부터 아날로그적 감성을 자극하기 때문이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필름 와인더를 돌려야 하고, 셔터 스피드와 초점을 조절해야 하는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마니아층으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수동 기능 장착 카메라는 디지털 특유의 편리성과 뛰어난 성능을 아날로그풍의 따뜻한 디자인에 녹였다는 점 때문에 디지털 기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호평받고 있다. 광고와 마케팅에서도 디지로그는 대세다. 첨단 제품을 선전하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감성을 담아내는 광고효과를 도입하고 있다. <특별취재반>

하이(Hi) Teen 공부합시다

디지로그란 디지털+아날로그 융·합으로 색다른 아이돌 문화부장관이 주창한 담론이자 화두

첨단에 한국적 감성을 입히다

후기 정보화 사회를 정의하는 말로 '디지로그(Digilog)'라는 신조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로그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미 디지털 기술, 생활·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짙게 뿌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꼽히는 디지로그가 활약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며, 디지로그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까요?

1 등장 배경은?

'디지로그'라는 말은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를 합친 말입니다. 이 말은 국내 대표적인 석학인 이영철 전 문화부장관(73)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로 제시한 일종의 '담론'이자 '화두'입니다.

그는 '디지로그(digilog)'를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이라고 정의합니다.

한 때 혁명으로까지 불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디지털이 이제 다시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시대조류를 짚어내는 말로도 풀이됩니다.

디지로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상현실과 실제현실, 정보네트워크와 물류 등 이항 대립체계를 융합·통합하는 후기 정보화 사회를 예언하는 키워드로도 해석됩니다.

다른 의미로는 젊은 세대가 디지털 세계에 수시로 접속하는 반면, 기성 세대들은 아날로그 세계에 머물고 있는 것 때문에 생기는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정보격차)'를 극복하려는 대안으로 제시된 담

IT·BT분야, 젓가락이 지닌 '휴머니티'에 주목 디지털 틈새서 영역 넓히며 뉴트렌드 산업 부상 '친인간형' 제품 등 개발 세대간 정보격차 극복

론입니다.

이 때문에 기술문명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문명의 이기인 디지털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융합한 디지로그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2 왜 한국인이 주목하나?

디지털과 아날로그로 양립하는 두 세계를 조화, 통합할 수 있는 한국인이 디지로그 파장을 토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때문입니다.

IT기술 인프라 위에 융통성 넘치는 사회분위기, 집중과 신바람 넘치는 국민성 등을 갖춘 한국이아말로 아날로그 기반에 IT 기술이 훌륭하게 접목, 융합할 수 있다는 '마당'이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전통적인 음양이론이 그렇고, 짚신이나 젓가락처럼 혼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통합과 융합의 철학이 그것입니다. 이 같은 상호성이 디지로그를 이끌어가는 저력이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젓가락을 예로 들자면 구조 자체가 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만 가지고는 음식을 잡을 수가 없으며, 두 개가 한데 어우러져야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IT와 관련된 도구들도 모두가 젓가락과 같은 페어(Pair)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단적으로 상대방이 있어야 메일을 보내고, 채팅하고 정보도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젓가락 정신'은 정, 믿음, 상호성(인터렉션)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젓가락 모델이 IT·BT 분야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도 단순한 손재주 기술이 아니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정과 믿음의 힘(휴머니티) 때문입니다.

3 왜 필요한가?

최근 계층간 양극화, 이념간 양극화라는 현안이 가장 큰 이슈로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디지털 디바이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게 일견한 현실입니다.

디지털 문명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과 그렇지 않은 세대들 간의 간극이 너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 계층과 계층간 정보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가 그것입니다.

이처럼 인터넷 같은 디지털 문명은 우리

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준 만큼 비인간화, 탈가족화같은 폐해도 남기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날로그 세상에 살면서도 수시로 디지털세계와 접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성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문명이 피할 수 없는 문명이라면 이 같은 폐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디지털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융합한 디지로그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디지털 세대가 아날로그의 감성을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아날로그 세대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세대가 쉽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친인간형' 관련 제품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4 '디지로그형 인간'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옛비웃'이라는 말이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옛'은 접두어 '옛박자'처럼 서로 다른 이질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비웃'은 '옛'과 반대로 같은 것의 동질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에 따르면 '옛'은 1과 0으로 구분되는 디지털이고, '비웃'은 일도양단으로 끊을 수 없는 연속체인 아날로그와 같다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즉, '옛비웃'에서 '옛'만 보는 사람이 '디지털형 인간'이고, '비웃'만 보는 사람이 '아날로그형 인간'인 셈입니다.

양자를 통합·융합해 함께 보는 폭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미래를 이끄는 '디지로그형'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특별취재반>

Advertisement for Naeyoung Institute of Education. Title: 'Naeyoung Institute of Education'. Subtitle: 'Even if you are a weak student, there is a difference in quality.' Main text: 'Summer Special Course Starts July 1st (Current Enrollment)'. Subjects listed include English, Math, Science, and Art. Contact info: 062-529-0090.

Advertisement for Eduview. Title: 'Eduview'. Subtitle: '2007 National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Text: 'Specialized courses for various subjects like Education, Korean, English, and Math. Contact: (02)816-1646.

Advertisement for Hangeul Education. Title: '2007 National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Main text: 'Specialized courses for Education, Korean, and English. Dates: July 9th, 10th, and 11th. Contact: 222-4560.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Title: 'Summer Special Course Starts July 3rd'. Subtitle: 'Best Teacher'. Text: 'Specialized courses for English, Math, and Science. Contact: 222-4560.

Advertisement for Gwangju Institute of Education. Title: 'Public Employment Exam Preparation'. Subtitle: '7/3 First Class Starts'. Text: 'Specialized courses for Public Employment Exam. Contact: 227-8003.

Advertisement for Hangeul Education. Title: '2007 National Teacher Recruitment Exam Preparation'. Text: 'Specialized courses for Education, Korean, and English. Contact: 222-6790.

Advertisement for Hanbit Gosi. Title: 'Summer Special Course Starts July 9th'. Subtitle: 'Best Teacher'. Text: 'Specialized courses for Public Employment Exam. Contact: 234-0234.